

# 돼지값 뚝 뚝 떨어지는데 삼겹살값 요지부동

## 산지 1kg 2505원 → 식당 200g 1만원 불합리한 유통구조에 소비자들만 '붕'

돼지 산지 출하 가격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 삼겹살 가격은 구제역 파동 이후 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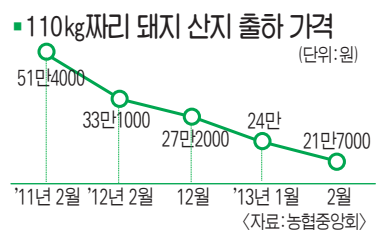
축산물 도매가격이 하락해도 유통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윤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2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1kg에 2505원으로 전국평균(2685원)에도 못 미치며 1년 전

4128원보다 40%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돼지 산지 출하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최근 전남지역에서 출하되는 돼지(110kg 기준) 한 마리 값은 24만1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돈농가가 돼지 출하에 드는 비용은 34만원. 결국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양돈농가들은 마리 당 1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는 줄어든 반면 돼지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



기 때문이다.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91만5000두로 적정 기준(850만두)을 17% 가량 초과했다. 전남도 2010년 말 구제역 사태 이후 돼지 입식이 크게 늘어 작년 말 기준으로 1037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99만4800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지 돼지값은 폭락했어도 광주지역 음식점 삼겹살 판매가격은 200g당 8000원~1만원 수준으로 1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식당 업주 김모(52) 씨는 "돼지고기 유통과정에서 중매수수료, 운송비, 해체작업비, 세금 등이 붙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오는 가격은 배 이상 높다"며 "또 채소값, 임대료, 전기요금, 인건비 등은 모두 올라 마진은 오히려 줄어 돼지고기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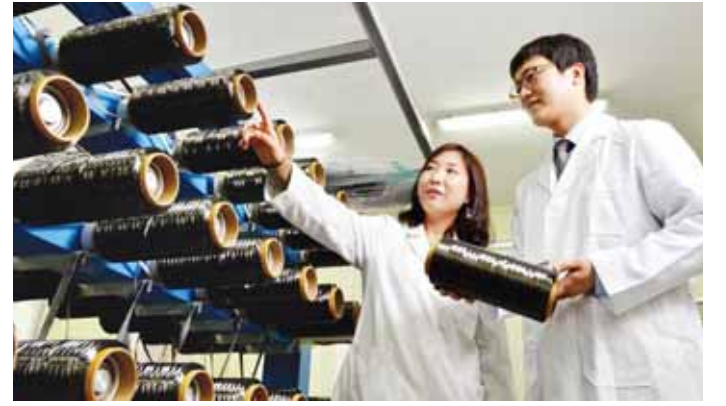
돼지고기 등 축산물 도매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유통업체들이 복잡한 유통구조를 내세워 이윤을 키워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놓은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고기(38.9%), 쇠고기(42.2%) 등 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돼지고기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도매가격이 1% 하락하면 유통마진이 0.38% 증가했다. 2012년 산지와 도매가격은 1990년에 비해 20%가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79%로 대폭 상승하면서 유통마진도 1990년 1700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6300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협동조합 주도의 축산계열화로 유통비용을 줄이면 농가 출하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 전주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생산된 탄소섬유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효성 제공)

## 효성 전주공장 탄소섬유 양산 2020년까지 1조 2000억 투자 年 1만4000t 생산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이 3월부터 탄소섬유 양산에 들어간다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된 효성 전주공장은 이달부터 시험가동에 돌입, 시제품을 생산한 데 이어 3월부터 중성능(T700급) 탄소섬유를 본격 생산한다.

효성은 올해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연산 1만4000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100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효성은 전주기계대학교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2008년 탄소섬유 기술개발에 착수해 2011년 T700급 중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탄소섬유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로 그동안 일본 및 미국의 극소수 기업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했다. 감철 무게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이상으로 우주·항공, 스포츠·레

저, 자동차, 풍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량화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탄소섬유 전 단계인 프리커서를 만드는 공정과 1000℃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소성공정으로 이뤄진다. 전주공장은 프리커서 제조공정부터 최종 완성제품인 탄소섬유 원사가 나오는 소성공정까지의 풀라인을 갖췄다.

탄소섬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현재 연간 5만(20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국내시장 규모는 2400t 수준으로 연간 11%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운 부회장은 "탄소섬유 본격 양산과 더불어 품질과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탄소섬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세계 톱클래스 수준의 탄소섬유 업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순도 100% 프리미엄 보드카 출시** 아영FBC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남석 구두 전문 편집매장 유니페어에서 러시아 프리미엄 보드카 '벨루가(Beluga)'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소개되는 벨루가는 '벨루가 노블'과 '벨루가 골드라인' 2가지로 가격은 각각 11만원, 45만원 이다. /연합뉴스

## 건설협회 전남도회 오늘 화순서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김영구)가 21일 오전 11시 화순 도곡스포큰드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 결정의 건'과 '2013회계년도 수입지출예산(안) 결정의 건' 등이 상정·처리된다. 부대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 우수대학생 10명과 도회 회원사 임직원 자녀 10명 등 20명에게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또 건설업 발전에 노력한 회원사 소속 유공자 5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국세청 6급 이하 717명 전보인사 전직원 45% 이동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창규)은 6급이하 세무직 및 기능직 직원 717명(세무직 704, 기능직 13)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올 전보인사에서는 6급 이하 전체 직원 44.7%가 이동해 지난해 734명(43.6%) 전보에 비해 인원은 다소 적었으나 점유비는 지난해 보다 많았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기준의 큰 틀을 유지해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지방청의 경우 업무 연속성

과 특수성을 고려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토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보 기준 일체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청 전임 직원 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실장에 위임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 특징은 여성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청 전임인원 84명 중 19명(22.6%)을 여성직원으로 배치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육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 33명에 대해서도 현관서에 유임 또는 희망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직원들의 근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쳐 22명에 대한 고충청구를 반영했다.

세무서 내 보직 이동에는 국제경력에 따라 5년 이상 경력직은 전문분야에 우선 보직하고, 5년 미만 신규직은 업무분야별로 순환보직토록 해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급감

1년새 16.5% 줄어...대기업은 늘어 투자 양극화 심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순전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투자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투자 양극화가 올해들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했다는 데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타격을 준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정책금융공사, IBK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총 설비투자액은 7조7042억원으로 2011년(8조7597억원)보다 1조5555억원 감소했다. 1년새 무려 12.0%가 줄었다. 중견기업은 14조2022억원으로 2011년(17조4734억원) 대비 18.7% 급감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을 합치면 26조2331억원에서 21조9064억원으로 1년새 4조3267억원이 줄어 감소율이 16.5%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은 2011년 105조5402억원에서 작년 107조7991억원으로

오хла려 2.1%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전체 설비투자 규모가 1.8% 감소한 데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다. 자연히 전체 산업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중은 2011년 6.6%에서 작년 5.9%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중견기업은 13.3%에서 10.9%로 2.4%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대기업은 2011년 80.1%에서 2012년 83.1%로 3%포인트 올라갔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24.64 (+38.81)	▲ 코스닥지수 525.69 (+3.20)	▲ 금리(국고채 3년) 2.71% (+0.02)	▼ 원·달러 환율 1078.50원 (-2.70)
-----------------------------	---------------------------	-------------------------------	-------------------------------

## 100대 기업 女임원 100명 돌파

국내 100대 상장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 임원은 총 33개사에 114명으로 파악됐다.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유니코써어치는 2013년도 100대 상장사 및 코스닥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임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KT가 26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어 삼성전자 22명, 대한항공 7명, 아모레퍼시픽 6명, 제일모직 5명, SK

네트웍스 4명, 코오롱인더스트리·한화투자증권·효성 각 3명이다.

100대 상장사의 여성 임원 숫자는 2004년 13명(10개사)이었으나 2006년 22명(13개사), 2010년 51명(21개사), 2011년 76명(30개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 100명을 돌파했다.

입사 후 임원이 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20.4년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21.5년, 2011년에는 20.8년에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1**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산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